

SERMON 17 JANUARY 2016

1 Corinthian(고린도전서) 12:1-11, Luke(누가복음) 4:1-14

해야 할까? / 하지 말아야 할까? 그냥 포기하고 커피와 함께 아이스크림과, 초코렛과, 케익을 먹을까? 매일의 유혹들은 확실히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아마 특별히 설탕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이 순식간에 따라오는 죄책감에 눌러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유혹이 저항된다면 이것은 선행의 느낌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소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여러 다른 곳에서 굶주리는 피난민들에 대해서 읽은 후에 인간은 심지어 내면에서 이야기 하는 사실에 정말 더 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의 기차를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복음에서 들은 것은 분명히 유혹에 관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 났었던 것에 관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정된 것을 듣고 유혹이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직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중요하게 이해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인간조건에 뭔가 기본적인 것을 그안에서 찾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광야의 설정과 아마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자신이 덩고 건조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또는 "사막" 용어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고통의 시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립, 외로움 그리고 깊게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을 암시합니다.

수세기 동안, 자신 스스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광야의 도전들과의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장소가 끌린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인 것을 찾는 것에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들은 시간을 초월하므로 사람들이 그때의 이런 남녀들의 영적인 투쟁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3 세기부터의 사막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글들은 아직까지 호소력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종교에 은둔자들이 있어왔습니다. 꽤 떨어진 아이오나(Iona)섬에는 수도원의 주거지로부터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한 은둔자의 방의 자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 낮에 혼자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별들이 꽃 안에서 바쁘고 바다의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훨씬 더 소리들에 민감해집니다. 나머지 우리들은 고대 은둔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하고 직면한 어떤 고난들을 간접적으로 위안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라 매이트랜드 (Sarah Maitland), 오랫동안 점차로 가족과, 그녀의 집, 그녀의 보장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의 직장을 침묵을 찾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느꼈던, 가 쓴 "침묵(Silence)의 책" 이라는 책을 최소한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는 6 주 동안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카이섬(the Isle of Skye)의 외로운 별장에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도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람과 비가 쏟아 질 때 강풍을 묘사하고 그녀는 폭우 속에서도 무슨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녀는 사람의 소리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야에서 떨어진 폐허가 된 별장을 발견하고 그녀 자신이 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거기에 삽니다. 그녀는 한 주에 한번씩 인터넷에 연결해서 글을 쓰고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요일마다 미사에 갑니다. 그녀는 고립과 침묵 없이는 그녀의 영성을 계속적으로 충족 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새의 소리를 듣고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그녀 주위의 세상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보통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막들을 벗겨 버리는 고립과, 침묵과, 광야라는 어떤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광야의 공간들을 지워버리고 채우려고 시도 하는 방법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하셨을때 광야로 인도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정제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가진 힘을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는 소리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주제에 대해 많은 설교를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정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인도되어 발견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었을 것 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진 사랑의 더 깊은 깊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했을 것 입니다. 그는 모든 앞에 놓여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 에서는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에게 읽는 이들에게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사탄의 마지막 기회 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청렴 위원회(IACA)가 아주 빈번히 폭로하는 모든 권력이 있는 것에게 유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자신에게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구절에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만드는 유혹적인 목소리에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권력의 문제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른 방법들로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 할 때 이것들이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신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의 소명을 이해할 공간과 장소의 끌려 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이 배고파하고,

외로워하고, 피곤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 충분하고 그 자신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저에게 제가 아이 이었을 때 나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이야기를 상시 시켜 줍니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에 10 년 동안 포위를 해왔습니다, 긴 10 년 동안 모든면에서 더 많은 궁핍함과 확실한 트로이인들의 결단력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모두는 어떤 일이 일어 났었는지를 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용사들을 숨기기로 선택된 거대한 나무로 된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화해의 선물로서 남겨졌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항해했던 동안,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었습니다. 트로이인, 약간의 토론 후에, 그 말을 도시 안으로 끌고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은 촉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저의 머리 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적이 내부에 있다" 적이 내부에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 할 때, 유혹의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를 타락으로 인도 하는 주위의 소리들을 우리는 이해 할 수 있을지라도, 사탄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의 광고 안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청춘의 샘, 화려한 집 그리고 차, 휴가들 그리고 훌륭한 요리 실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처럼 이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일으키는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말 신경 쓰는가? 우리는 그럴 만큼 충분이 잘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 까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을 합니다. 때때로 그게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울을 피하고 우리자신과 삶을 봐야 하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장소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 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도록 하는 삶을 실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자주 만드는 이런 기준들은 유혹의 한 형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소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고생하는 사람들, 핍박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님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가치를 두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팔 복을 이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제가 콩코드 중증정신병원 원목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매우 심한 비현실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결코 적응해서 살 것 같지 않고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결코 좋게 느낄 수 없는 그 곳에서 종종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자각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요일 간단한 예배를 보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머리와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건 하나님은 서로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가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거예요”를 불렀습니다.

유혹은 우리 내부의 적에 관한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소리를 흐리게 할 때도 있고 광야의 공간과 우리 내부의 빈 공간을 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말할 지에 대해 우리 외부의 적만큼이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콜릿 또는 아이스크림 또는 무엇인가를 먹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여 우리의 삶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람과 대결하기 위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나옵니다. 그는 사탄의 속임수 목소리에 대면해야 했고, 그뿐 아니라 깊은 큰 고통 즉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번민을 통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가 지지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 모두를 헌신하여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광야의 경험 이후에 그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더 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직면하고 결국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충분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우리 세상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